

## 200자 안내

### 지방의 도전

이와쿠니 데쓰오 지음 / 정재길 옮김

세계최대의 증권회사인 메릴 린치의 수석부 사장으로 저자가 있던 자신의 고향인 이즈모 시의 시장이 돼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산업"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벌인 성공적인 지방행정의 모범사례를 기록한 책. 3년간에 걸쳐 한 시골도시를 완전 탈바꿈시킨 저자는, 일본능률협회가 선정하는 '베스트 기업 9'의 91년 수상자가 되기도 했다. 지방자치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골몰하고 있는 우리에게 한 모델을 가르쳐주는 책이다.

삶과꿈/A5신/274면/4800원

### 바늘구멍

켄 폴레트 지음 / 편집부 옮김

지난 78년 미국에서 출판돼 1년동안 베스트셀러목록에 올라 있을 정도로 인기를 모았던 작가의 출세작이자 대표작. 2차대전의 승패를 좌우한 연합군의 노르망디상륙작전에서 독일군을 속이기 위해 펼쳤던 기만작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소설은, 영화로도 제작돼 성공을 거둔 작품. 78년 미국추리작가협회가 시상하는 최우수장편상을 받고 했다.

지성의샘/A5신/416면/5300원

### 물위의 연가

왕쑤어 지음 / 박재연 옮김

전업작가를 선언하고 「사회주의적 범죄는 즐겁다」 등의 작품을 통해 특이한 소재를 다루어온 중국의 젊은 작가의 자전적 소설. 범죄으로 살아가는 중국청년들을 등장시킨 이른바 '법제소설'로 분류되는 이 작가의 소설 4편이 88년 한해동안 영화로 제작되는 붐을 일으킨 바 있다. 중국문단의 현재를 전해주는 이 작가의 소설을 통해 진통을 겪고 있는 중국의 현실을 동시에 가늠할 수 있다.

빛샘/A5신/300면/4800원

### 中國의 외교정책과 외교

송영우·소치형 지음

모택동의 등장으로부터 한중수교가 이뤄진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외교정책을 분석, 평가한 책으로, '외교정책'과 '외교'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중국외교정책의 원칙과 강대국들과의 외교노선 등을 분석함과 동시에 외교적 역량은 물론 외교정책과 외교의 함수관계를 정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두저자는 10년 주기로 급변해온 중국외교의 변천사를 통해 중국외교 역량이 부실하다는 비판적 견해를 표명한다.

지영사/A5신/302면/6000원

### 海王

유현중 지음

역사소설의 일가를 꾸려온 작가의 장편역사소설. 삼국을 통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들끓는 왜구를 처리하지 못했던 신라에서 태어나 바다를 평정하고 해상무역의 중개자로 명장으로 역사에 기록된 장보고의 긴박감 넘치는 일대기를 다루고 있는데, 평범한 어부의 자식으로 태어나 바다의 제왕이 된 전설적이기까지한 장보고의 진면목을 소설로 읽는 재미가 뛰어나다. 왜구들과의 일대격전 장면 등이 흥미를 더해준다.

우석/A5신/320면/4500원

### 미사리

박해범 지음

승려시인이 체험을 바탕으로 써낸 첫 장편소설. 지난 82년부터 시를 발표하며 작품활동을 벌여온 작가의 이 작품은, 운동권학생이 돼 사회정의를 부르짖으며 집과 가족을 떠나 떠돌던 시절과 궁단 주변을 배회하며 사랑에 빠져 번뇌하던 청년기를 보냈던 일들을 꾸밈없이 기록한 것. 자신으로 인해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 수녀와의 만남, 그리고 과문을 당해 어린 자식의 젖동냥을 나서야 했던 파란만장한 과거사가 펼쳐진다.

시간과공간사/A5신/284면/4000원

### 下山 그 다음 이야기

권경술 지음

현재 창원기능대학교수로 있으면서 지도법사로도 활동하는 작가는 지난해 세계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한 늦각이 수필가이기도. 유년시절과 작가를 꿈꾸던 청년시절의 이상과 사랑과 종교를 향한 구도열로 충만한 자신의 일상을 진솔하게 고백하고 있는데, 등단작품인 「결계관」을 비롯해 이미 출간한 「구중인간」 가운데서 추린 39편과 44편의 신작을 한데 모아 엮었다.

불광출판부/A5신/344면/5000원

### 중국이나 일본이나

진순신 지음 / 강표 옮김

작가는 일본에서 태어난 중국인으로 양국에서 역사가가면서 추리작가로 활약하고 있는데, 이 책은 중국인과 일본인의 사고방식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동북아시아의 미래를 예견한 것. 소주제를 다룬 짧은 글로 구성돼 있는데, 인간 지상주의와 無神論에 기초한 중국인의 사고방식과 성을 초월한 생존의식으로 몽쳐진 일본인의 속성을 고찰하고 있어 우리에게 오히려 오히려 같은 두 나라의 본질에 접근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인간사/A5신/240면/4500원

### 강박사의 PC통신

강용중 지음

사용자가 끊임없이 늘고 있는 PC통신에 대해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저자가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꾸민 입문서. PC통신과 관련된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해설에서부터 부가가치 통신망, 전자계시판, 전자우편, 전자서류, 전자회의, 재택처리시스템에까지 이르는 전반적인 면을 폭넓게 다루었다. 'PC 및 PC통신 기술용어 정리'와 'HITEL 사용법' '모뎀 사용법'이 부록으로 첨부됐다.

희성출판사/A5신/284면/8000원

### 굿모닝 볼랜드 C++ 3.0 함수활용 (상·하)

조규상 외 지음

C프로그램에서 응용 가능하고 활용하기 쉽게 함수활용 프로그램을 새롭게 작성하고 유사한 기능의 함수들을 한데 모아 프로그램에 필요한 함수를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특징을 지닌 컴퓨터책. 또한 함수의 특징을 보다 쉽게 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제 프로그램을 수록해 도움을 준다.

컴퓨터매거진/A5신/각 624면/각 10,000원

### 물 한모금만 더, 뽀뽀 한번만 더

홍미영 지음

아이를 돌보며 일어나는 숭한 사례를 통해 가장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일러주는 현장 육아기록. 유아원 별나라어린이집 원장인 저자가 수년간 어린이들을 키우고 가르치며 경험한 현장체험을 유아교육 이론에 대입해 해석해낸 귀중한 '해답'이 들어 있는 이 책은, 유치원과 유아원교사나 부모들에게 아이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충실히 안내한다.

그린비/A5신/302면/5000원

### 사랑과 일을 거리에 맡기고

허영자 지음

첫시집 「가슴엔드 눈엔드」를 비롯한 5권의 시집과 다수의 수필집을 펴냈던 여류시인(성

신여대 국문과교수)의 대표적인 수필을 한데 모아 엮은 책. 쉽게 접하고 놓치기 또한 쉬운 일상사를 섬세하고 감성적인 눈으로 잡아내는 시인은 젊은 시절의 아련한 추억을 수채화 그리듯 형상화하며, 교육자이며 시인인 자신의 변민을 60여편의 수필에 온전히 담아냈다. 특유의 시각과 표현이 돋보이는 작품만을 골라 읽는 재미를 안겨준다.

동화출판사/A5신/308면/4500원

### CS세일즈

모리 쓰루오 지음 / 이두영 옮김

일본의 저명한 세일즈 컨설턴트의 저서를 번역한 것으로, 저자가 그동안 세일즈의 일선에서 체험한 귀중한 성공사례를 프로그램화한 책. CS(Customer Satisfaction)경영 가운데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판매부문을 요약한 이 책은 CS세일즈의 5대원칙과 상담의 6단계별 성공기법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상담프로세스를 초회방문, 재방문, 제안설명, 문제해결, 체결, AS로 나누어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방법도 해설돼 있다.

한국산업훈련연구소/A5신/248면/5000원

### 브레인

로빈 쿡 지음 / 박민 옮김

인체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임상실험의 문제를 다룬 소설로, 의학범죄를 소재로 스틸과 미스터리를 접목시킨 작품. 의사인 마틴과 그의 애인 데니스는 대학병원 연구실에서 수술 도중 숨진 여성환자를 부검하던 중 뇌가 없어진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컴퓨터를 맹신하는 인공지능 연구원과 권력의 조직적인 담합으로 사건은 발전해나간다. 극적이고 치밀한 구성으로 짜여진 이 소설의 번역은 현직 외과전문의가 맡았다.

열림원/A5신/310면/5000원

### 남성심리 여성심리

칸바 와타루 지음 / 설수정 옮김

인간의 잠재의식 속에 감추어진 갖가지 욕구 등 심리세계를 알기쉽게 풀이한 책으로, 남여의 상이한 심리상태를 비교한 '남자의 심층심리, 여자의 심층심리'를 비롯해 자신의 심리를 진단하게 하는 '재미있는 심리테스트' '바디랭귀지' '대인관계 활용방법' 등이 주요목차. 이성관계나 대인관계 등에서 성공의 열쇠는 심리 메커니즘의 이해도에 있다는 것이 이 책의 주제.

삼천리/A5신/272면/4500원

### 잠을 깨야 무얼하지

지성수 지음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걸프전쟁, 남북교류 문

제와 노동문제 등 우리사회 전반에 걸친 관심사에 대한 건강한 상식을 제공하는 시사칼럼집. 비중있는 주제서부터 일상사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목소리로 열린 시각을 보여주는 저자는 생활교회의 목사로, 봉제공장 등에서 노동을 하며 '교회밖의 목사'임을 자임한다. 전통적인 신앙관이나 세계관의 틀을 버리고 실천과 행동을 삶의 지침으로 삼아고 역설한다.

장백/A5신/238면/4200원

## 취하고 싶다

안곤양 지음 / 정지은 옮김

책제목이 말해주듯 술을 인용한 詩人들의 음주시를 모아, 마땅한 이야기를 덧붙인 책으로 저자는 대만의 중앙대학교수이며 작가. 이 책에 실린 작품들은 대개가 중국 唐代의 시와 宋代의 詞로 이태백, 두보, 도연명의 알려진 작품과 함께 소개되지 않았던 진기한 작품들도 실려 있다. '취하고 싶은 이유'와 '취하고자 하는 약속' '취한 풍경' '술이 깬 후의 맛' '술의 품질 및 기타'로 내용이 꾸며져 있다.

당그레/A5신/192면/4000원

## 모델이야기 (1·2)

설리 로드 지음 / 예진희 옮김

미국의 유명패션지 「VOGUE」에서 10년간 뷰티 디렉터로 근무했던 작가가 그런 경험을 살려 모델의 화려한 세계 뒷면에 숨겨진 비리와 부패상을 고발한 소설. 패션계의 황금만능주의를 둘러싼 온갖 음모와 성형수술의 비밀, 그리고 性을 매개로 한 출세 등 裏面을 파헤치고 있는데, 자칫 허영심으로 접근하기 쉬운 모델이란 직업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함께 추리기법이 가미된 소설의 즐거움이 공존한다.

유레카/A5신/260면/3800원

## 미국생활의 정신건강

김병석 지음

1백만에 가까운 재미교포들이 그곳에서 이질적인 문화와 체제로 인해 얻을수 있는 정신질병과 그 자문방법, 치료 등에 관한 책. 현재 미국서 정신과 전문의를 하고 있는 저자는 미국생활의 특성과 문제점 적응과정을 전제한 뒤 정신건강을 해치는 갖가지 요인, 그로 인한 신체적 증상들, 그리고 최면치료를 비롯한 치료의 종류 등에 관해 서술하고 있다. 이민의 충격으로 고생하는 교포들을 위한 저서이지만 일반적인 경우도 배제하지 않았다.

교문사/A5신 180면/4000원

## 혼자 사는 여자 그리고 남자

이철 외 지음

노처녀 노총각 딱지가 붙은 30대 미혼 남녀 10명의 결혼관을 엿보게 하는 글10편이 실린

책. 농촌총각과 장애인이 겪는 결혼에 있어서의 불이익, 결혼으로 인해 차단되는 여성들의 사회활동에 대한 젊은이들의 당찬 목소리가 담긴 이 책의 필자들은 작가, 농부, 프리랜서, 기자, 회사원 등의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어, 더욱 흥미로운 발언을 들을 수 있다. 다양한 직업만큼 다양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결혼의 열쇠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게 결론.

나무/A5신/232면/3800원

## 계간지

### 轉換 2001 (92년 겨울, 창간호)

[시론] ▲음향의 시학(趙鳳濟) ▲禪과 초현실주의(김용태) ▲성격학적으로 살펴본 李箱시의 두 측면(이선의)

[시] 김차영 / 이봉래 / 박희선 / 김상화 / 박태진 / 이추림 / 성찬경 / 신동춘 / 한경자 / 신정식 / 허유 / 최석 / 박세형 / 김가배 / 이상백 / 이단림 / 정정하

[특집시론] 2천년대 한국시의 전망과 과제(윤석산)

[신간평론] 혼돈의 영역 : 현대문학과 과학에 나타난 질서속의 무질서(김상률)

전환2001/A5신/204면/4000원

## 연간지

### 科學과 哲學 (3집)

과학사상연구회 엮음

[특집] 시간과 공간 ▲동양사상에서의 시공개념(장희익) ▲칸트와 아인슈타인의 동시성 연구(소광섭) ▲현대물리학에서의 시간과 공간(조용민)

[연구논문] 에피스테메의 변환(이정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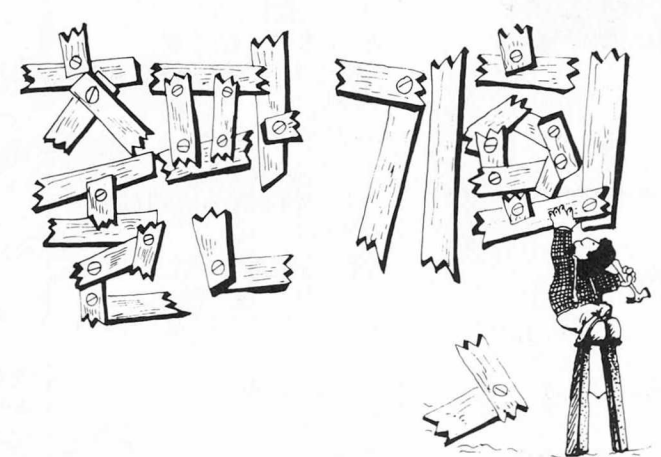
[논문] 실재론과 지식의 역사성(폴 피어어 벤트)

[동양사상산책] 禪과 時空의 초월(박영재)

[서평] 메타과학과 과학철학(임일환)

[연구동향] ▲경락의 실체(이혜정) ▲현상학의 최근동향(이남린)

통나무/A5신/192면/4500원



## 이제 출판기획의 시대로!

우리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마스크와 함께 그리고 책과 함께 하루를 보냅니다. “기획상품... 기획히트상품...” 우리에게겐 ‘기획상품’이란 단어는 매우 익숙하고 ‘기획출판상품’이란 단어는 아주 낯섭니다. 왜 그럴까요? 기업을 꾸려나가던 경영자들은 80년대 이후부터 기획의 중요성을 깨닫고 기획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출판계 사정은 달랐습니다. 책을 내달라고 원고를 들고 찾아오는 이뿐만 아니라 지명도 있는 몇몇 작가 외는 책을 못내어 안달이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는 아이디어 싸움의 시대 세상은 변했고 출판계도 변했습니다. 출판사 영업부장들은 출판불황의 가장 큰 원인이 ‘기획의 고갈’이라고 이구동성 말하고 있습니다. 한술기획은 이제 막 걸음마를 배운 어린양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한국출판의 돌파구인 기획출판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진력하고 있습니다.



한술에서는 출판에 관한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출판기획 · 출판제작 · 사사제작 · 광고기획 · 전자조판 · 표지디자인 등  
서울시 중로구 내수동 4번지 옥빌딩 706호(세종문화회관 뒤) 대표전화 735-4997 팩시 722-3866